

전일동향

전일대비 12.60원 하락한 1,364.60원에 마감

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2.60원 하락한 1,364.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90원 하락한 1,374.3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국내 증시 강세에도 글로벌 달러와 달러-엔 환율 반등에 하락폭이 제한되었다. 이후 환율은 역외 매도세 및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어 급락했으나 결제물량 등에 하단이 지지되며 1,364.6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5.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7.88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4.30	1377.20	1361.30	1364.60	1369.40
	엔화	934.95	935.63	924.94	930.67	-
	유로화	1503.20	1509.82	1486.48	1489.37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5	-7	-14.6	-26.5
	결제환율(수입)	-1.12	-6.14	-12.95	-23.1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리스크온 지속에...1,36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64.60) 대비 0.50원 상승한 1,362.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경기침체 우려 완화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 등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며 그간 미국 경기침체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촉발한 증시 폭락을 모두 회복했다. 위험선호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7월 실업률 발표 이후 페드워치 기준 70%에 육박했던 연준의 9월 빅컷(50bp) 인하 확률은 50% 이하로 낮아졌다. 미국 2년 국채금리는 약 1.6bp 상승했으나, 10년 국채금리는 지표 부재에도 불구하고 4.8bp 하락했다. 달러화는 증시 회복과 연준 빅컷 기대 약화로 인해 약세를 보였다. 이에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따른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와 이를 쫓는 역외 숏플레이, 커스터디 매도 유입 등에 환율 하락 분위기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해외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실수요 저가매수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0.00 ~ 1368.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50원 ↑
	■ 美 다우지수 : 39497.54, +51.05p(+0.1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2.1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57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